

FA ‘100억 전쟁’ 시작됐다



KIA 양현중



SK 김광현



삼성 차우찬



삼성 최형우

KBO, FA 자격 18명 공시…11일부터 모든 구단과 협상

KIA 양현중·SK 김광현 등 국내 잔류팬 몸값 ‘천정부지’

역대 최대 규모의 FA(자유계약선수) 시장이 열린다. KBO는 7일 2017년 FA 자격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총 18명이 FA 자격을 갖췄다. 이들은 9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 승인을 신청하고, KBO는 10일 FA 승인 선수를 공시한다. 11일부터는 본격적인 FA 시장이 열린다. 올해부터는 원소속구단의 우선협상 기간을 없애, 11일부터 모든 구단과 협상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22명이 FA 신청을 했고, 미국프로야구에 진출한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를 제외한 21명이 KBO리그 구단과 FA 계약을 했다. 지난해 박석민이 NC 다이노스와 4년 최대 96억원에 계약하며 윤석민(KIA 타이거즈)의 4년 90억원을 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고, 21명이 총 766억2000만원에 사인해 2015년 FA 720억원6000만원을 크게 넘어섰다. 올 겨울 FA 시장에서는 두 기록이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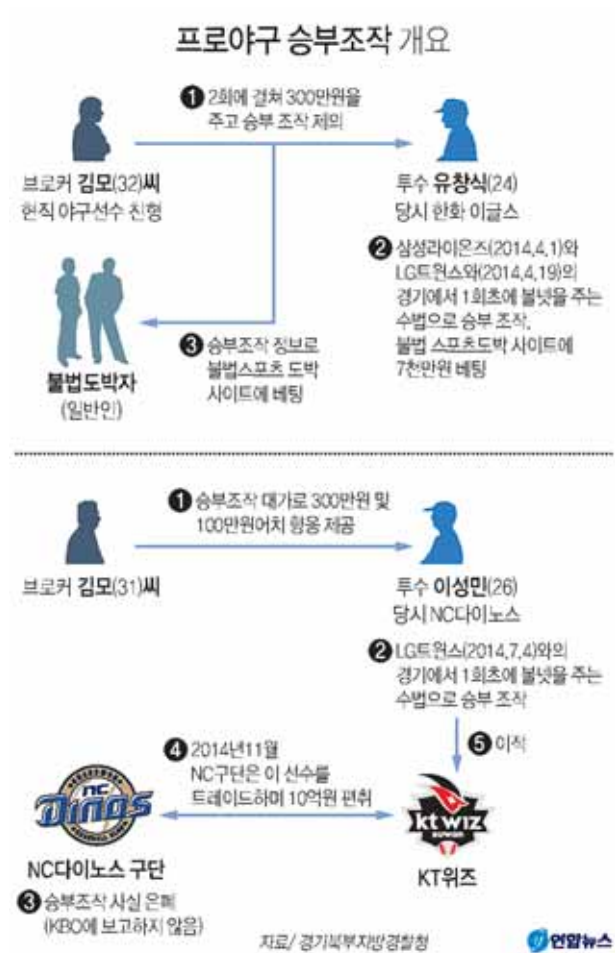
깨질 수 있다. FA 자격을 갖춘 선수 중 ‘최대어’로 꼽히는 선수가 4명이나 된다.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좌완 김광현(SK 와이번스)과 양현중(KIA 타이거즈) 또 다른 좌완 에이스 차우찬(삼성 라이온즈)이 FA 자격을 얻었다. 꾸준한 활약 속 올해 타격 3관왕을 차지한 좌타자 최형우(삼성 라이온즈)는 타자 최대어로 꼽힌다. 이들 4명 중 KBO리그에 남은 선수는 100억원 돌파가 유력하다. 하지만 이들의 계약 소식은 다소 늦게 들려올 가능성이 크다. 김광현과 양현중, 최형우는 메이저리그 구단, 차우찬은 일본프로야구 구단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내 잔류를 택해도 많은 구단과 접촉할수록 몸값이 오를 수 있다. 영입 경쟁이 과열되면 당분간 넘기 힘든 ‘초대형 계약’이 탄생할 수도 있다. 준척급에서는 롯데 자이언츠 3루수 황

재균이 돋보인다. 황재균도 미국 진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LG 트윈스 사이드암 선발 우규민도 꾸준한 투수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두산 베어스 유격수 김재호와 좌완 마무리 이현승, KIA의 젊은 거포 나지완도 내심 FA 대박을 꿈꾼다. 이호준(NC 다이노스), 정성훈, 이진영(이상 LG 트윈스) 등 베테랑 3총사의 계약 과정도 주목받는다. 불확에 접어든 이호준은 “단기 계약을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했다. 반면 30대 중후반의 정성훈과 이진영은 조금 더 긴 계약을 원한다. 이 밖에도 이원석(두산), 용덕한, 조영훈(이상 NC), 봉준근(LG), 김승희(SK), 이우민(롯데) 등이 FA 자격을 얻었다. FA 영입은 외국인 선수 영입과 함께 단기간에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이다. KBO리그는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가 11~20명이면 외부 FA를 2명까지 영입할 수 있다. 전력 강화를 꾀하는 구단은 복잡한 계산을 하면서, 타 구단 동향도 살핀다. 지난해 FA 시장 큰 손이었던 한화 و 롯데, NC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지만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연합뉴스

NC ‘NG’

**승부조작 사실 은폐…해당 선수 kt 특별지명으로 10억 책여
유창식·이성민 입건…이재학 무혐의·불법 도박은 시효 지나**

프로야구 NC 구단이 선수들의 승부조작 사실을 은폐한 뒤 해당 선수를 트레이드해 10억 원을 챙긴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스포츠 구단이 조직적으로 승부조작을 은폐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로야구 KIA 유창식(24)과 롯데 이성민(26)은 각각 한화와 NC 소속이던 지난 2014년 경기에서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NC 구단 배모 단장(47)과 김 모 운영본부장(45)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유창식과 이성민 등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7명과 불법도박자 10명 등 모두 17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같은 혐의로 브로커 김모(32)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브로커 김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에 연루됐던 NC 이재학(26)의 승부조작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고, 2011년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면하게 됐다. 현직 야구선수의 친형인 브로커 김씨는 유창식에게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주고 승부 조작을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창식은 이에 응해 2014년 4월 1일과 19일에 각각 열린 삼성과 LG와의 경기에서 1회초에 볼넷을 주는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다. 유창식은 또 7000만 원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배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브로커로부터 제의를 받은 이성민은 2014년 7월 4일 LG와의 경기에서 1회초 볼넷을 주는 대가로 300만과 식사 등 100만원여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NC 소속이던 이성민은 승부조작 혐의가 2014년 구단 전수조사 차원에서 밝혀졌지만, 단장과 운영본부장은 구단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KBO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7일 NC 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입수했지만 이성민과 구단 측은 승부조작과 은폐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승부조작 사실이 은폐돼 이성민은 신생 구단인 kt 위즈에



서 특별 지명을 받았고, NC 구단 측은 10억원을 쟁겼다. 이 외에도 프로야구선수인 김모(27)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속했던 팀 선수들에게 볼넷과 히트 등 승부조작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400만 원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배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男 아이스하키, 유로 챌린지 우승 ‘파란’

‘천적’ 헝가리 3-2 꺾어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16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EIHC) 정상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다. 백지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세계 랭킹 23위)은 7일 대회 결승전에서 신상훈·조민호(이상 안양 한라), 마이클 스위프트(하이원)의 릴레이 득점포에 힘입어 역대 전적에서 1승 1무 11패의 열세를 보인 헝가리를 3-2로 꺾었다. 한국이 2013년 유로 챌린지에 출전한 이래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B조 1위로 결승에 오른 한국은 A조 1위를 차지한 홈 팀 헝가리를 맞아 1피리어드 6분 52초에 신상훈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지만 카를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1피리어드를 1-1로 마무리했다. 3피리어드 초반까지 이어지던 1-1의 팽팽한 균형은 한국 대표팀의 주장 조민호에 의해 깨졌다. 조민호는 3피리어드 10분 32초에 헝가리 골네트를 가르며 경기 흐름을 한국 쪽으로 끌어왔다. 오스트리아와의 조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16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 정상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별리그 2차전에 이은 2경기 연속 골이자, 이번 대회 조민호가 터트린 3호골이었다. 헝가리는 경기 종료 1분 21초를 남기고 골리를 빼고 추가 공격수를 투입하는 마

지막 승부수를 던졌지만, 한국은 오히려 종료 51초 전에 스위프트가 엠티넷 골(상대 골리가 없는 상황에서의 득점)을 터트리며 승부에 쏜을 맞았다. /연합뉴스

KIA ‘극한 캠프’에 투수 임기준 중도 귀국

KIA 선수들이 오키나와에서 ‘극한’ 캠프를 치르고 있다. KIA 마무리 캠프단은 지난달 31일 일본 오키나와행 비행기에 올랐다. ‘4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마무리 캠프는 ‘극한 캠프’로 통한다. 캠프 시작과 함께 예상했던 것보다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한 때 낮

기온이 30도를 육박할 정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선수들의 체감 피로도가 높다. 여기에 ‘부상 경계령’도 긴장감을 주고 있다. 부상으로 완벽하게 훈련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바로 귀국 조치가 내려진다는 방침이 정해지면서 캠프에 참가한 선수들은 몸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벌써 중도 귀국자가 발생했다. 좌완 임기준이 목에 담이 오면서 캠프에 집을 풀자마자 다시 집을 싸야 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지난 3일 시작된 피칭 훈련을 당분간 소화하지 못하는 만큼 귀국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오키나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KIA의 ‘극한 캠프’는 오는 29일까지 계속된다. 완주를 목표로 한 마무리 선수들의 생존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